

溫突 起源地 研究

A Study on the Origin of Ondol

오승환
가디언문화유산연구원 원장

I. 머리말

II. 범위와 대상

1. 기원지의 범위
2. 대상 검토

III. 온돌의 기원지와 지역권

1. 온돌의 기원지
2. 지역권의 상호관계

IV. 맺음말

국문 요약

이 글은 온돌의 기원지를 찾아 밝히기 위한 연구¹이다. 온돌의 기원지는 그동안 여러 지역으로 추정되어 왔다. 하지만 이를 지역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爐에서 온돌로 발전되어가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온돌은 새로운 토기 제도술과 기종, 철제 농공구류 등 이질적인 물질자료와 함께 급격히 등장할 뿐이다. 따라서 온돌의 기원지는 기존에 추정되어온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에 온돌의 기원지로 추정된 지역은 하나같이 동북아시아의 40° 이상 고위도지역에서 기원전 3~2세기에 형성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 점은 온돌의 실제 기원지 역시 이를 지역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기원전 3세기 이전부터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기술 구조상 爐에서 곧바로 온돌이 발명되기는 어려우므로 폐쇄식 爐나 배연구조를 갖춘 지역으로 그 대상지를 좁혀볼 필요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온돌의 기원지는 기원전 3세기 이전에 아궁이·배연구조를 사용하던 동북아시아 40° 이상 고위도 지역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북위 40° 이상의 한반도 북부지방, 중국 북부(요령성·길림성·흑룡강성·내몽고자치구·하북성 북부·신강위구·르자치구·감숙성 북부)지방, 몽골공화국, 러시아(연해주·자바이칼) 일대의 사례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반도 북부, 몽골공화국, 러시아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중국에서는 신석기~전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아궁이식 爐와 排煙構造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부뚜막이 확인된다. 특히 이 시기의 부뚜막이 집중되는 내몽고자치구 赤峰 敦漢旗 鄂爾多斯溝遺蹟의 하가점 히충문화 단계에서 최초의 온돌이 확인되었다. 이후 戰國 燕의 당산 동환타유적에서는 전형적인 'ㄱ'자형 온돌이 나타난다. 동환타유적은 그동안 기원지로 추정되어온 지역의 'ㄱ'자형 온돌과 구조, 형태, 시기차가 크지 않다.

이와 같이 온돌은 내몽고의 흥륭구유적에서 발생한 뒤, 하북성 동화타유적에서 전형적인 'ㄱ'자형 구조로 발전하였음이 밝혀졌다.

주제어 :온돌, 기원지, 흥륭구유적, 동화타유적

I . 머리말

온돌은 한국을 대표하는 생활문화로 브리태니커사전(Encyclopaedia Britannica)에도 ‘김치’, ‘태권도’와 함께 등재되어 있다. 그래서 온돌의 종주국이란 자부심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온돌은 기원과 발달과정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앞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뿐 아니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온돌의 기원과 주변지역으로 확산과정은 시급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우리나라 온돌의 기원에 관한 연구는 북한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그 배경에는 영변 세죽리, 시중 노남리, 북창 대평리, 중강 토성리유적 등 초기 온돌의 조사성과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온돌이 기원전 5~4세기경 압록강 중상류지방에서 발생하여 오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았다(정찬영 1966).

남한에서는 1980년대 들어 수원 서둔동유적의 조사와 북한의 자료를 받아들이며 초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구조적 특징이나 기술적 접근이 아닌 형태 변화만으로 변천과정을 살펴보는 정도였다. 온돌의 기원지에 대해서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자체 발생설’의 논리가 제시되었다(장경호 1985, 1992: 55). 1990년대는 ‘터널식爐(온돌)가 연해주지역의 철기문화와 함께 한반도에 전해졌다는 외부지역 전래설이 제기되었다(임윤미 1990).

2000년대에는 한동안 한반도 온돌의 통사적 흐름을 모색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김남웅 2004; 김동훈 2005; 송기호 2006). 이 가운데 송기호는 온돌이 여러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이른바 ‘다원설’을 제기하였다. 골자는 온돌이 “자바이칼-몽골 북부(북흉노)와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북옥저)에서 독자적으로 발생” 하였다는 주장이다(송기호 2006: 50, 53).

이후 송기호의 ‘다원설’은 10여 년 넘게 한반도 온돌의 기원에 관한 가장 유력한 가설이 되었다. 이후 일부 수정안(유은식 2015: 172)도 있었지만, 역시 ‘다원설’을 기반으로 한반도 서북한지역(세죽리유적)을 더하고 있다. 획기적 가설이었던 ‘다원설’은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게 지지를 받아왔다. 하지만 기원지 문제를 비롯하여 확산 및 발달과정에서 점차 그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온돌의 기원지로 추정되어온 지역에 대한 검증연구를 통해 이를 지역이

온돌의 기원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오승환 2021 발간 중). 그 동안 온돌의 기원지로 알려진 곳은 출현시기와 지역이 일정 범위에 한정(기원전 3~2세기의 동북아시아)되어 있다. 이들 지역에서 온돌은 전에 없던 토기 제도술과 기형, 철제 농공구류, 청동 화폐처럼 새로운 물질문화와 함께 급격하게 등장하는 양상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온돌의 등장 이전까지 아궁이나 배연시설과 같은 구조나 기술없이 평면의 爐만 사용하던 곳이다. 심지어 방형계 주거지며 벽체에 온돌을 설치하는 방식, 평면형태, 축조재료 아궁이의 위치 및 구조까지 모두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서로 떨어진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특징(시기+문화요소+기술)과 함께 온돌이 등장하는 것이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오승환 2021 발간 중).

이처럼 '다원설'에서 기원지로 지목되어온 지역은 모두 온돌을 발명할 수 있는 문화적 기술적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온돌은 이들 지역에서 자체 발명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전래된 문화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에 온돌의 기원지로 추정된 곳이 아닌 새로운 지역에서 실제 기원지를 찾아 밝혀보려는 것이다.

Ⅱ . 범위와 대상

1. 기원지의 범위

'다원설'에서 주장하는 온돌의 기원지는 자바이칼-몽골 북부(북흉노),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북옥저), 중국 동북-한반도 서북한(세죽리-연화보유형)의 세 곳이다 (송기호 2006; 유은식 2015). 하지만 이들 지역 모두 爐에서 온돌로 발전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구조나 형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기원전 3~2세기의 동북아시아에만 집중되며, 온돌의 구조, 형태, 축조재료, 설치 위치, 공반 유물 등이 대체로 일치한다. 특히 철제 농공구, 새로운 제도기술의 토기와 기종, 청동 화폐 등 새로운 물질문화와 함께 갑자기 등장하는 점은 기원지의 특징이라 하기 어렵다(오승환 2021 발간 중).

이와 같이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온돌구조와 물질문화가 나타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징은 온돌이 여러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발명되었다기보다 단

일지역에서 발생하여 외부로 확산되었을 때 나타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즉 온돌과 그 지역의 물질문화가 함께 전해져야 이처럼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온돌 구조와 물질자료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시공간에 한정되어 온돌이 나타나는 이유 역시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단일지역에서 온돌이 기원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다원설’이 아닌 ‘단일설’이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나아가 온돌의 실제 발생지에서 기준의 기원지로 추정된 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이나 지역간 상호관계 등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곳에서 온돌의 기원지를 찾기란 너무 막연하고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온돌의 기원지를 밝히기 위한 시공간 및 기술적 범위부터 설정하고, 이 범위에 해당되는 유적을 대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온돌 기원지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으로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¹⁾

1. 시기는 기원전 3세기 이전.
2. 지역은 북위 40° 이상 동북아시아.
3. 기술은 아궁이와 배연구조의 존재.

이상의 세 가지 기준으로 범위를 설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은 온돌의 기원지로 추정된 곳의 연대가 모두 기원전 3~2세기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이와 같거나 오히려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는 온돌의 기원지로 알려진 곳 모두 동북아시아의 북위 40° 이상 고위도지역에 자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이 일정한 시공간에 온돌의 기원지가 국한되는 것은 실제 기원지 또한 이들 지역과 지리적 거리나 문화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곳일 가능성성이 크기 때문이다. 3은 온돌이 벽과 천정이 있는 아궁이와 연기를 빼내는 굴뚝이 技術的으로 결합된 시설이기 때문이다. 지면에 불을

1) 단결 - 쿠로우노프카 문화의 경우 온돌이 춘현 시기를 방사선탄소연대값의 교차검증없이 그대로 적용하여 기원전 8~7세기까지 옮겨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를 보면 대체로 기원전 3세기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재윤 2016: 133; 오강원 2016: 66, 2017: 6; 유은식 2004: 56~62, 2015: 25; 나선민 2016). 그리고 지역적으로 왜 동북아시아 고위도지역에서만 온돌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밖에 온돌에 대한 구조 기술적 검토 없이 어디서든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문제도 나타난다. 이상의 3가지 기준을 통해 설정한 범위는 온돌의 기원지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그 대상이 너무 넓고 다양해지는 반면, 더 세밀한 기준을 추가하면 해당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해 검토대상을 상당수 놓치게 된다.

피우는 평면형태의 爐 단계에서는 곧바로 온돌을 발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온돌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가지거나 발전과정이 나타나는 곳에서 발명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의 세 가지 기준에 따른 시공간 및 기술적 대상을 상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그 대상이 단지 온돌과 유사점만 가지는지, 실제 온돌의 원형이 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갖추었는지 등을 비교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검증과정을 거쳐 온돌의 원형이 분명하다고 판별되면 해당 유적을 온돌의 기원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상 검토

전술한 3가지 기준에 따라 온돌의 기원지에 대한 시간적 범위는 기원전 3~2세기 보다 선행하거나 동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1번 기준에 해당하는 시간적 범위는 기원전 3세기 (시대 구분의)초기철기시대부터 이전의 청동기와 신석기시대 주거지(취락)를 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공간적 범위는 동북아시아의 북위 40° 이상 고위도 지역이므로 실제 기원지 역시 이와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2번 기준인 지역 범위는 한반도 북부, 중국 북부(요령성 · 길림성 · 흑룡강성 · 내몽고자치구 · 하북성 북부 · 신강위구르자치구 · 감숙성 북부)지역, 몽골공화국,²⁾ 러시아 연해주~자바이칼 일대와 그 주위의 시베리아지역이 해당한다. 3번 기준인 기술범위는 주거지 내부 공간에 閉鎖式爐인 아궁이나 排煙을 위해 벽체를 따라 고래 또는 굴뚝이 설치되는 시설까지 모두 대상으로 삼았다. 이상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범위에 해당하는 유적은 아래와 같다(표 1).

[표 1]에서 보듯 세 가지 범위에 충족하는 사례가 한반도 북부, 러시아 연해주 및 자바이칼, 몽골공화국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중국 북부의 내몽고자치구, 요령성, 하북성 북부의 33개소 유적에서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신석기~전국시대의 취락에서 다양한 형태의 아궁이와 배연구조를 갖춘 부뚜막이 나타난다. 다만 부뚜막은 상부가 유실되거나 일부만 잔존하지만 벽체에 설치하여 외부로 배연하였음을 보여주는 구조적 특징은 잘 나타나고 있다.

2) 중국령 '내몽고'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독립국인 '몽골 공화국'으로 '분하였다.

[표 1] 온돌 기원지의 대상 범위 유적일람

地域	對象遺蹟	文化類型(時期)	遺構	形態
한반도 북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몽골공화국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러시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중국 内蒙古	赤峰 西水泉	紅山類型	13·17號	灶
	赤峰 藥王墓	夏家店 下層	5號 住居址	灶
	赤峰 四分地 東山嘴	夏家店 下層	1·5·6號 住居址	灶
	赤峰 蜘蛛山	夏家店 下層	1號 住居址	灶
	赤峰 東山咀	夏家店 下層	6號 住居址	灶
	赤峰 夏家店 寧城 南山根	夏家店上層·西周~春秋	4·5號 住居址	灶
	赤峰 敖漢旗 小山	趙寶溝 類型	1·2號 住居址	灶
	赤峰 敖漢旗 小河沿 塔山	夏家店 下層	1號 住居址	灶
	赤峰 敖漢旗 小河沿 南台地	夏家店 下層	12號 住居址	灶
	赤峰 敖漢旗 興隆溝 3地點	夏家店 下層	1號 住居址	火牆
	赤峰 敖漢旗 小河沿	小河沿類型	4·8號 住居址	灶
	赤峰 巴林左旗 富河溝門	富河文化	3號 灰坑	灶
	鄂爾多斯 伊金霍洛旗 朱開溝	紅山文化 阿善 3期	7006·7號 住居址	灶
		夏代早期	1020號	灶
		龍山晚期	2029號	灶
		龍山晚期	2034號	灶
		夏代早期	2037號	灶
		夏代早期	4003號	灶
		商代 二里岡段階	5001號	灶
중국 遼寧省	包頭 阿善	紅山文化 阿善 3期 晚期	第3期 1號 住居址	灶
	呼和浩特 清水河 白泥窯子	紅山文化 阿善 1期	BC.1號 住居址	灶
	烏蘭察布市 岱海地區 王墓山	仰韶 晚期	1號 住居址	灶
	烏蘭察布市 岱海地區 東灘	仰韶 晚期	6號 住居址	灶
	北票 豊下	夏家店 下層	2·5·12號 住居址	灶
	瀋陽 新樂	興隆窪 類型	2號 住居址 83CD4號 住居址	灶
	新民縣 公主屯 后山村	鄭家窪子類型 初期	1號 住居址	方形灶
	東溝 後窪	後窪 下層	24號 住居址	灶
	東溝 後窪	後窪 上層	16號 住居址	灶
	凌原 城子山	紅山 後期	1號 住居址	灶
중국 河北省	長海 吳家村	小珠山 中層	1號 住居址	灶
	長海 小珠山貝塚	B.C.4500	6號 住居址	灶
	旅順 于家村	B.P.4510~3975	5號 住居址	灶
	大連 郭家村	小珠山 上層	1號 住居址	灶
	蔚縣 節子綾羅	龍山文化	103號 住居址	灶
	蔚縣 節子三關	仰韶文化 廟底溝類型	2號 住居址	灶
	藁城 台西	商代 中期	2·11號 住居址	灶
중국 易県	磁縣 下潘汪	西周~西周 末期	4·5·6號 住居址	灶
	易縣 燕下都	西周~戰國 後期	東沈村 6號 2·15·16號 住居址	灶(火坑)
	唐山 東歡坨	戰國 後期	23號 住居址	灶(火坑)

중국에서는 신석기시대부터 아궁이와 배연구조를 갖춘 부뚜막이 남부와 북부지역 모두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난방시설인 온돌은 북위 40° 이상 고위도지역에서만 나타나므로 기원지 역시 이 지역의 부뚜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내몽고지역은 [표 1]에서 보듯 가장 많은 부뚜막(灶)이 나타나며 신석기시대부터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곳이다. 이는 朱開溝遺蹟에서 보듯 新石器時代~商代의 방형·‘凸’字形 주거지 벽체에 부뚜막(壁灶)이 설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주개구유적 부뚜막의 상부구조는 잘 남아있지 않으나, 주거지 외부로 연기를 배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벽가에 설치하였음은 분명하다.

내몽고지역은 대상유적 가운데 가장 고위도지역에 자리하며 그 중에서도 동남부 일대는 가장 밀집된 양상을 보인다(17개소). 그 중에서도 이 적봉지역(12개소)은 신석기시대부터 夏家店 下層文化 段階에 이르기까지 집중된다. 여기에서 다시 범위를 더욱 좁혀보면 敦漢旗 일대는 인접하는 夏家店까지 포함해서 다른 어느 곳보다 밀집도가 높은 편이다(6개소)(표 1).

III. 온돌의 기원지와 지역권

1. 온돌의 기원지

내몽고 적봉일대의 부뚜막은 이미 신석기시대부터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하가점 하충문화 단계(기원전 2000~1500년)에는 더욱 증가한다. 이를 보면 赤峰 四分地 東山嘴遺蹟 6호 주거지, 赤峰 東山咀遺蹟 5호 주거지 등에는 부뚜막이 벽가를 따라 가장자리에 반원형으로 설치된다. 그러나 寧城 南山根遺蹟 4호 주거지에서는 부뚜막이 점차 긴 사다리꼴을 이루며 설치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형태는 아궁이 뒤로 점차 고래가 짚게 형성되면서 부뚜막의 고래가 길어지는 양상이다. 이후 赤峰 敦漢旗 興隆溝遺蹟 3지점 1호 주거지에서는 온돌의 원형으로 볼 수 있는 구조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다(사진 1).³⁾

3) 이 유적은 정식보고 없이 여러 차례의 중간보고만 이루어져 3지점에 대한 자세한 현황이나 유물 등은 아직 파악하기 어렵다. 유적은 모두 3개 지점으로 나뉘는데, 각각 紅牛文化 충기의 대형 취락(B.P. 8000~7500년), 紅山문화 후기의 소형 환호취락(B.P. 5500~5000년), 하가점 하충문화의 소형 환호취락(B.P. 4000~3500

홍릉구유적 3지점 1호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으로 서북장 벽 중간에 아궁이를 설치하고, 고래를 단벽과 맞닿는 부분까지 길게 설치하였다. 아궁이는 판석을 조립하여 봇돌과 이맞돌을 쌓고 그 뒤로 굴뚝까지 벽체를 굽착하여 고래를 만들었다.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아궁이에서 고래와 굴뚝에 이르기 까지 'ㄱ'자형을 이룬다. 아궁이가 벽면에 축조되고, 고래와 굴뚝은 벽 내부를 파서 설치하다 보니 마치 '-'자형처럼 보이지만, 구조나 형태 모두 후대의 전형적인 'ㄱ'자형 온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축조방식이 고래 부분에 점토를 쌓지 않고 생토를 파서 만들고, 솔걸이가 불분명한 아궁이 구조 등은 후대의 전형적인 'ㄱ'자형 온돌에 비해 덜 발달된 상태이다. 그러나 아궁이와 고래가 90°로 꺾이며 난방을 위해 고래를 길게 빼고 끝에는 외부로 연기를 배출하기 위한 굴뚝을 둔 구조는 분명히 초기 온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내몽고지역에서 가장 이를 시기의 온돌 구조가 등장하는 것은 갑작스런 돌출이 아닌 신석기시대부터 부뚜막(아궁이+배연구조)을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전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몽고 적봉지역은 홍릉구유적에서 온돌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부뚜막을 사용해왔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과정에서 폐쇄식爐인 아궁이와 연기를 배출하는 굴뚝 구조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 1] 敦漢旗 興隆溝 유적 3지점 ①호 주거지 전경 ②온돌의 아궁이 세부

년)으로 이루어져 있다(國家文物局 主編 2003: 16; 吉日嘎拉 2012; 劉國祥 외 2003;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 敦漢旗博物館 2000: 8(584); 中國考古學會 編 2004;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第一工作隊 2004).

이러한 부뚜막 축조기술을 바탕으로 난방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래를 길게 빼는 방식으로 난방에 효과적인 온돌 구조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부뚜막에서 온돌로 구조적인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랭한 고위도지역이라는 점이 가장 주효했을 것이다. 이는 중국 남부의 장강유역에서도 부뚜막은 신석기시대부터 쓰이지만 온돌로 변화·발전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표 1]에 해당하는 고위도지역은 아니지만 하북성 동쪽에 자리하며 비교적 위도가 높은 山東地域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난다. 중국 산동성은 한반도와 황해를 두고 마주하며 서울~평양과 비슷한 위도에서 신석기시대의 부뚜막이 다수 조사되었다.

이 지역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유형으로 大汶口文化가 있다. 그중에서도 早期(기원전 4000~3800년)에 해당하는 대문구유적 201호 주거지에는 벽주건물처럼 벽체를 따라 柱孔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다. 주거지 내부의 중앙에는 대형 주공 2개가 나타나며, 장방형 부뚜막은 주거지의 남벽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 1997: 74~75)(도면 2-④). 산동지역에서는 이미 신석기시대 초기부터 지상식 벽주건물과 외부로 연기를 배출하기 위해 벽체에 붙여 부뚜막을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주거지 내에 여러 개의 부뚜막을 설치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 특히 대문구문화 中期(기원전 3500~2800년)에 해당하는 烟台市 長島縣 北庄遺蹟 16호 주거지에는 출입구의 양옆으로 방형, 맞은편 벽에는 정방형 부뚜막이 설치되어 있다 (도면 2-①). 이후 商代(기원전 1600~1046년) 晚期의 章丘 董東遺蹟의 ‘凸’字形 1호 주거지에는 출입구의 측면에 타원형 부뚜막이 설치되어 있다. 이 부뚜막에는 솔걸이에 扇 1점이 거치된 채 발견되었다(도면 2-②). 扇은 본래 세 개의 다리가 달려있으므로 爐 바닥에 세워놓고서 사용하던 취사용기이다. 취사시설은 이미 爐에서 부뚜막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扇을 솔걸이에 거치해서 사용하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바닥의 爐에 사용하던 취사용기가 입체구조인 부뚜막으로 바뀌어도 그 전통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아직 원저의 취사용기나 솔받침이 등장하기 이전의 양상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 東周時代(기원전 771~256년)의 青州 凤凰台遺蹟 101호 주거지에는 점차 지상식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구조도 나타난다. 여기에 부뚜막은 주거지의 출입구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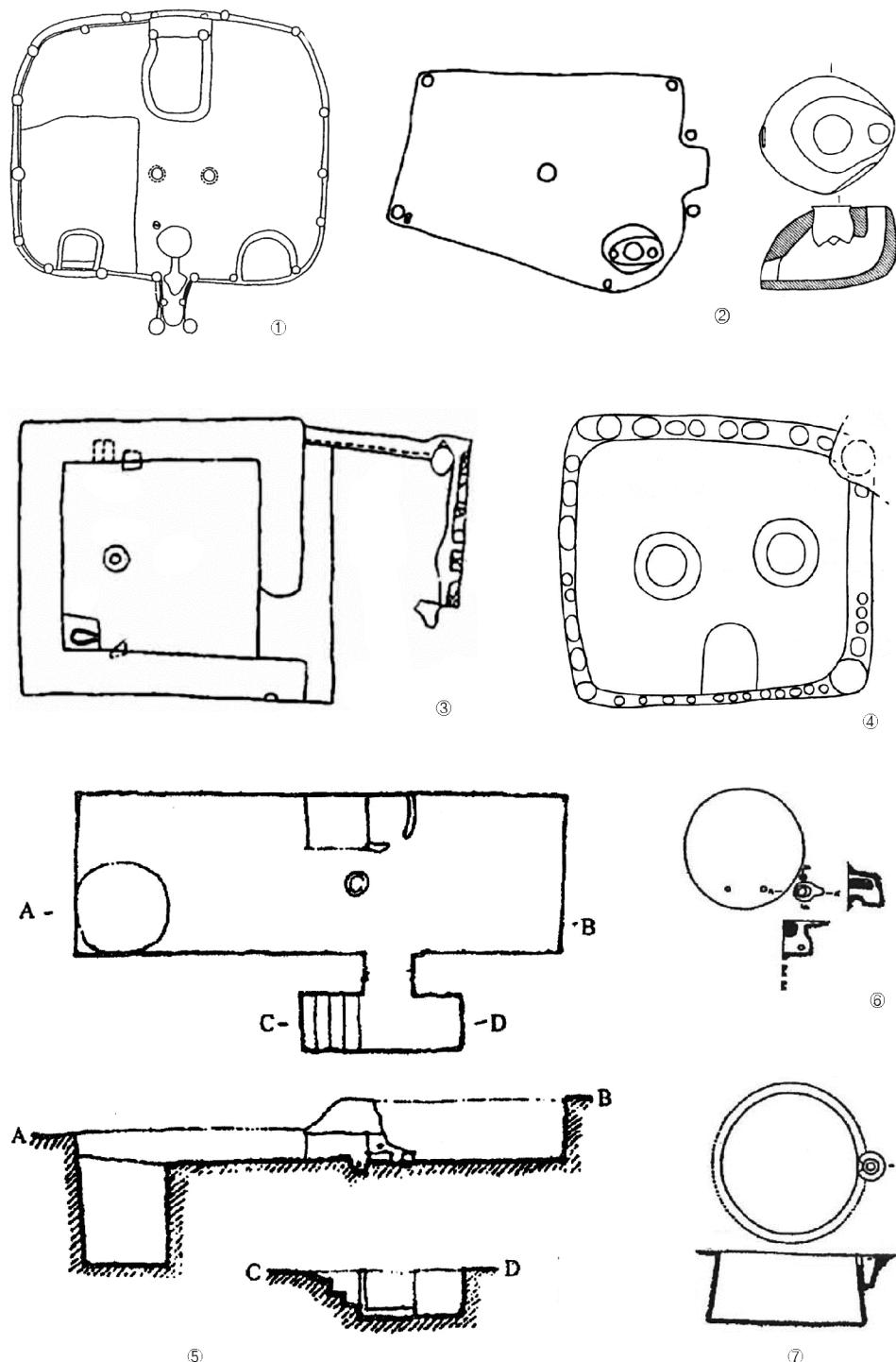
대쪽 모서리에 방형이 설치되었는데(도면 2-③) 구조나 형태는 후대(秦·漢代)의 정형화된 부뚜막에 가깝다. 이처럼 산동지역에서는 신석기시대부터 주거지의 지상화와 다양하고 발달된 형태의 부뚜막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뚜막에서 온돌로 변화하는 사례는 후대까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은 남한지역과 위도가 거의 같은 하남성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河南省 鎮平縣 越灣遺蹟에는 신석기시대부터 지상식 건물이 사용되며 방마다 부뚜막이 설치되었다. 이와 같이 지상식 주거지나 수혈 주거지와 부뚜막의 조합은 신석기시대부터 나타나지만 온돌처럼 고래를 길게 빼거나 이와 유사한 구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도 북부지역인 산동성이나 하남성에서도 신석기시대 이래로 부뚜막만 사용되었지 온돌로는 변화하거나 발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시기에 부뚜막을 사용하던 중위도지역($35\sim40^{\circ}$)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반면 고위도인 내몽고지역에서는 하가점 하층문화 단계에 아궁이의 측면으로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고래)를 길게 늘여 난방기능을 강화한 온돌구조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이는 일찍부터 부뚜막을 사용해오던 북위 40° 이상의 내몽고지역에서 온돌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는 부분이다. 다만 동시기나 가까운 시기의 유사사례가 없으므로 외부지역으로 확산되어가는 과정이나 사례는 아직 파악되지 않는다.

내몽고 오한기 흥륭구유적의 위도 좌표는 북위 42.388791° 이다. 이는 북위 40° 이상 고위도지역으로 설정한 1번 기준에 해당한다. 그리고 흥륭구유적 3-1호 주거지는 하가점 하층문화단계라는 점에서 2번 기준에 부합한다. 또한 신석기시대부터 아궁이와 배연구조를 갖춘 부뚜막이 활발하게 사용되어온 지역이란 점에서 3번 기준과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흥륭구유적 3-1호 주거지의 온돌은 세죽리유적이나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의 온돌과 약간의 차이를 엿보인다. 무엇보다 벽체를 파서 고래를 만드는 방식과 벽체에 잇대어 점토와 돌로 고래를 쌓는 방식의 차이다. 물론 흥륭구유적은 기존에 온돌의 기원지로 알려진 곳과 비교하더라도 10세기 이상 시차가 존재하므로 직접적인 관계를 설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흥륭구유적과 후대의 온돌을 연속선상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어주고 구조 및 시기차를 극복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내몽고지역에서는 아직 후행하는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향



[도면 2] 중국 동북지역 신석기~전국시대 부뚜막(축척 부동) ①烟台市 長島縣 北庄 16호 ②章丘 董東 1호 및 부뚜막 세부
③青州 凤凰台 101호 ④泰安 大汶口 201호 ⑤河北 藁城 台西村 11호 ⑥·⑦河北省 下潘汪 5·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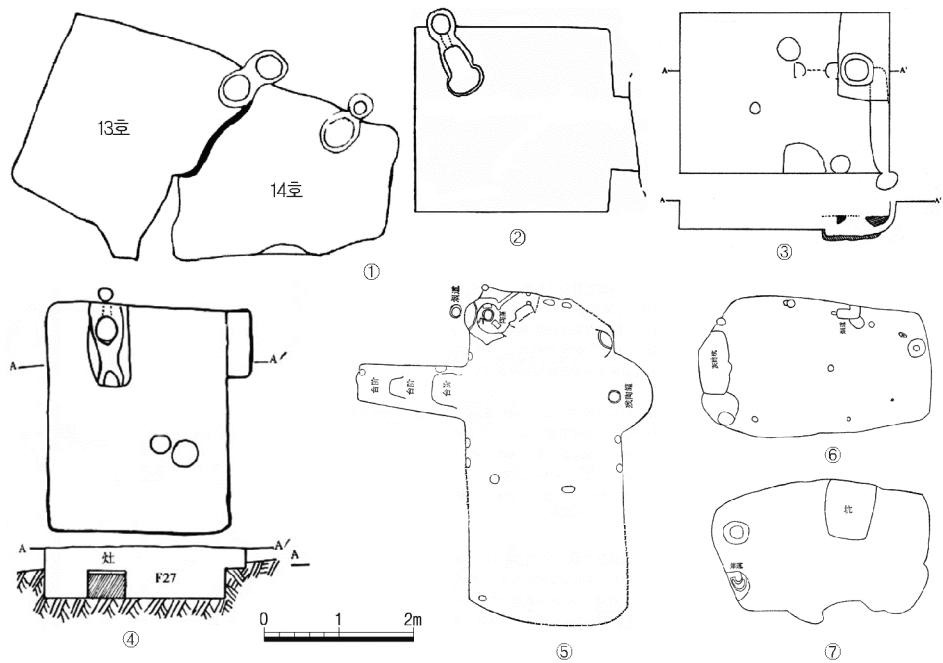
후 취락과 개별 주거지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찾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비록 내몽고지역에서는 벗어나지만 河北省 북부지역에서도 商代(기원전 1600~1046년) 이후 부뚜막 배연구조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河北省 石家庄市 藁城 台西村 11호 주거지에는 출입구가 주거지의 큰방 중앙 벽에 부뚜막이 설치되는 등 다수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으나 아직 신석기시대에 비해 별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도면 2-⑤).

이후 西周時代(기원전 1046~771년)의 磁縣 下潘汪遺蹟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도면 2-⑥ · ⑦)(劉敦楨 主編 1980: 196). 하변왕유적 5 · 6호 주거지의 안쪽 벽에 설치된 부뚜막은 고래(煙道)가 벽체에서 깊게나마 외부로 연결되어 빠져 나가는 구조를 가진다. 이는 주거지의 벽체 중간에 설치된 아궁이에 불을 피우면 화기가 한번 꺾인 뒤 외부로 빠지도록 하는 마치 개자리와 같은 구조이다(도면 2-⑥ · ⑦). 이처럼 서주시기부터 하북성 북부에서는 배연시설을 외부로 빼내는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후 西周~戰國時代(기원전 403~221년)에 이르면 부뚜막 형태는 점차 온돌과 같이 아궁이에서 고래가 'ㄱ'자로 꺾이기 시작한다(도면 3-⑤~⑦). 易縣 燕下都遺蹟의 東沈村 6號 住居區域 내 2호 주거지 모서리의 부뚜막을 보면 실내의 부뚜막에서 굴뚝을 밖으로 빼는 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도면 3-⑤). 이는 부뚜막의 고래가 수혈 주거지의 벽체를 뚫고 연기를 외부로 빠져나가도록 하고 있다. 15호 주거지도 부뚜막의 고래가 아궁이에서 'ㄱ'자로 꺾이는 전형적인 온돌 형태에 가깝다(도면 3-⑦). 하지만 고래 길이가 1m 이내로 깊으며, 벽체를 따라 형성되지 않는 등 아직 난방을 위한 온돌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무튼 이것은 부뚜막에서 온돌로 변화하는 중간 과정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16호 주거지의 방형 부뚜막 역시 아궁이 입구에서 안쪽으로 'ㄱ'자처럼 꺾인다(도면 3-⑥). 이 역시 이전의 부뚜막과 달리 점차 온돌의 형태와 구조로 변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⁴⁾

4) 易縣 燕下都遺蹟 東沈村 6號 住居區域의 2호 주거지는 西周 中期, 15호와 16호는 西周 晚期로 보고 (447~451)되어 있다. 반면 戰國時代로 판단하는 등의 견해도 있어 이를 西周~戰國時代로 설정하였다(국립 문화재연구소 2012; 조진선 2015). 헌편 15호 주거지의 부뚜막을 '箱式川'로 구분하여 온돌 구조가 여기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桑靖菲 2013: 12~13, 35). 그러나 아직 온돌 구조가 세대로 갓추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아 'ㄱ'자형 온돌로 발달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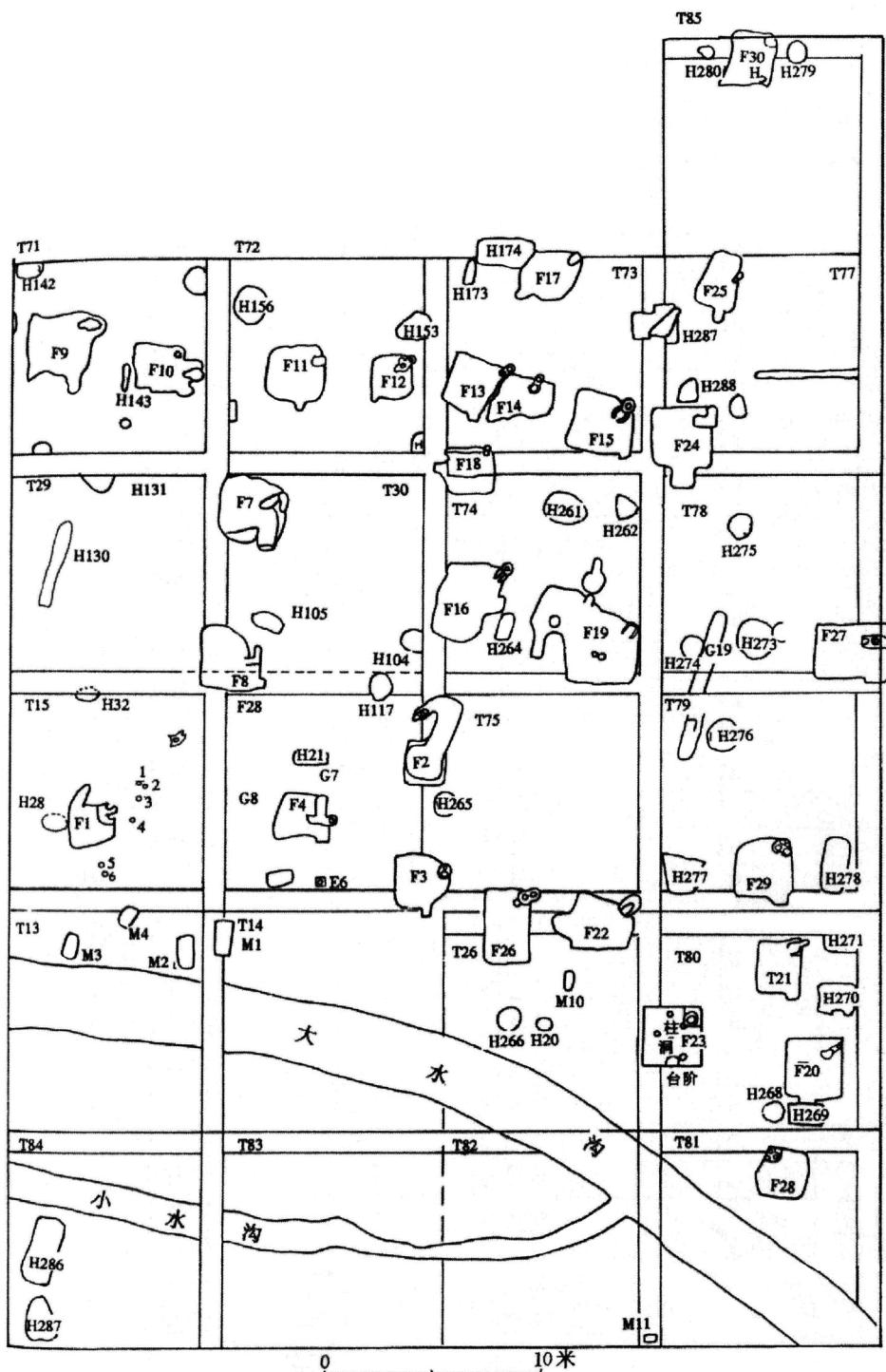


[도면 3] 唐山 東歡坨遺蹟 ①13·14호 ②20호 ③23호 ④27호, 易縣 燕下都 東沈村 6號 住居址 내 ⑤2호 ⑥15호 ⑦16호

이와 같이 연하도유적의 주거지에서는 짧게나마 부뚜막의 아궁이와 고래가 온돌처럼 ‘ㄱ’자형으로 꺾이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을 거치며 戰國時代 후기가 되면 ‘다원설’의 기원지와 유사한 ‘ㄱ’자형 온돌 구조가 唐山 東歡坨遺蹟에서 나타난다(도면 3-①~④·④). 동환타유적은 燕의 취락유적으로 연하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다. 취락 내에는 주거지 30기, 옹관묘 8기, 우물 4기, 토기요지 2기와 다수의 야외 부뚜막 등이 조사되었다(河北省文物研究所·唐山市文物管理處 1998: 185~186). 취락 내의 주거지는 밀집된 상태로 일부 중복은 보이지만, 일정 간격과 방향성을 가지며 배치되는 등 동시기성을 엿볼 수 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대개 (장)방형이지만 부정형과 말각방형을 비롯하여 출입구가 돌출된 사례도 나타난다. 이중 20·24호는 ‘凸’字形이며 3·11·17·18·29호도 마치 ‘凸’자형처럼 주거지 외부로 출입구가 돌출되어 있다. 대부분의 주거지에는 평면 형태와 관계없이 부뚜막이 설치되며, 외부에서도 다수의 야외 부뚜막이 나타난다. 부뚜막은 대체로 주거지 내에서 북동모서리에 위치한다.⁵⁾ 다만 23호 주거지에는 ‘ㄱ’

5) 취락 전체가 아닌 일부 주거 도면만 제시되어 있어 실제 취락 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도 있다.



[도면 4] 唐山 東歡坨遺蹟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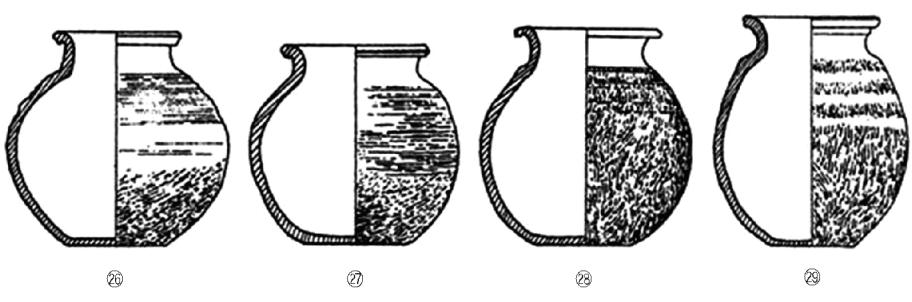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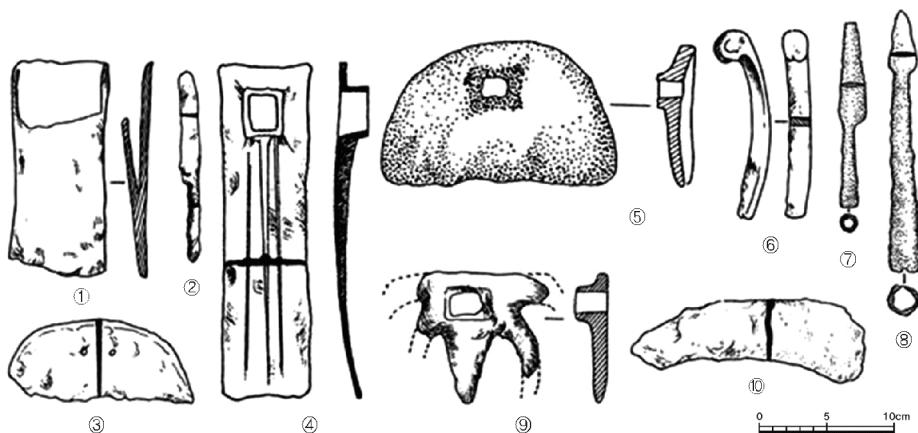
자형 온돌이 설치되어 있다(도면 3-③).

23호 주거지 온돌은 장방형의 土壇과 이어지며 동벽은 부뚜막과 연결되어 있다. 부뚜막은 잔존상태가 양호하여 솔걸이까지 모두 남아있다. 토단은 동벽과 북벽모서리까지 이어지며 여기에 취사·조리도구·음식기 등을 올려둘 수 있도록 하였다. 고래는 부뚜막의 아궁이 끝부분에서 남쪽의 출입구를 향하여 직각으로 꺾이며 벽체를 따라 설치되어 있다. 굴뚝은 실내가 아닌 주거지 외부로 빠져나가도록 조성하였다.

내옹고의 흥릉구유적 3지점 1호 주거지의 온돌에서는 아궁이의 솔걸이가 불분명하고, 벽체를 파서 고래를 조성하였다. 반면 동환타 23호 주거지의 온돌은 점토 부뚜막과 솔걸이가 분명하며, 점토로 벽체를 따라 고래를 쌓고 굴뚝은 주거지 밖으로 빼내어 설치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이미 연하도유적 2호 주거지에서도 미약하나마 확인된 바 있다. 동환타유적은 부뚜막만 나타나는 취락에 'ㄱ'자형 온돌이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처럼 동환타유적에서는 연하도유적에 비해 길어진 고래 길이와 외부로 빠지는 굴뚝 등 '다원설'에서 기원지로 추정되어온 지역의 'ㄱ'자형 온돌과 동일한 구조 및 형태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다.

동환타유적의 취락에서는 다량의 豆, 盆, 釜, 罐, 量, 甑, 鉢, 盤 등의 토기류와 陶璧, 半瓦當, 板瓦, 筒瓦 등의 기명 및 와전류가 출토되었다(도면 5-⑪~⑫). 그리고 鍛, 長板鍛, 鐵, 多齒鍛, 鋤, 削, 鏗刀 등의 농공구류와 矛, 五銖錢, 銅印, 刀幣, 帶鉤, 挿銷 등 연하도와 비교 편년이 가능한 금속유물도 다수 출토되었다(도면 5-①~⑩). 이러한 유물상을 통해 동환타유적이 농경과 생산관련 취락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시 최고의 위계인 易縣 燕下都에 비해 유물의 수준이나 다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동시기의 다른 유적과 비교하면 철제 농기구 및 토기의 구성이 비교적 다양한 편이다.

燕의 취사용기는 三足鑄과 燕式釜로 불리는 토제 솔이 사용되었는데, 동환타유적에서 삼족력은 보고되지 않으므로 부뚜막에 토제 솔을 걸어 취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환타유적에서 출토된 燕式 釜는 전국시대 중기 이전의 둥근 동체에 저부는 원저와 타날이 없으므로 대부분 중기 이후로 편년할 수 있다. 또한 동체 외면의 타날방향이 바뀌지 않은 채 저부까지 직선으로 이어지고, 동체 외면에서는 곡선의 양상에서 점차 직선으로 축약되므로 중기에서도 후기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구연은 단부가 내만하고 동체 축약도가 커지는 양상이 보이지 않으므로 漢代까지 떨어지는 형식은 보이지 않는다(김주호 2017: 15; 정인성 2012: 145~146, 2014: 211).



0 5 10cm

[도면 5] 唐山 東歡坨遺蹟 출토유물

고배도 디수 출토되었는데(도면 5-⑪~⑫), 전국시대 전중기의 고배는 배신에 큰 변화가 없지만 중간에 한번 꺾이는 후기의 양상이 여러 점에서 나타난다. 고배의 대각단 상면도 짧게 수평면을 이루다가 내측으로 약간 경사를 이루며 마무리 되는데 이러한 특징이 여러 점에서 나타난다. 이는 중기에서 후기까지 이어지는 속성이므로 대략 중심 연대가 이 시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대각 단부 끝단의 반전 속성이 중기부터 보이지만 비교적 두드러진 것도 많아 상당수는 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하도에서는 고배의 대각이 높고 낮은 2가지 형식이 모두 나타나지만 아무래도 취락의 위계 때문인지 높은 대각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연하도의 후기 고배에서 주로 보이는 대각 중상위의 돌대나 폭이 좁은 볼륨감 등을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전국 시대 중기와 후기의 속성은 충분히 관찰된다(정인성 2012: 143~144).

戰國 燕의 철기는 戰國時代 전중기(기원전 5세기 중엽~4세기 말)동안 큰 발전 없이 易縣의 燕下都 일대에 한정된다. 하지만 후기(기원전 4세기 말~3세기 말)가 되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그 종류와 수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연하도에서 보이는 무구류나 차마구는 거의 없는 대신 철제 농기구류가 디수를 이루는 농업 중심 취락의 한계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전국 전중기에는 연의 철제 농기구 종류가 穩鑿鋤(윗자루 팽이), 鋤板(호미), 鎌刀(낫) 등 일부에 불과하지만, 후기에는 橫鑿鋤(옆자루 팽이), 多齒鋤(쇠스랑), 六角橫鑿鋤(육각형 호미), 人字形鋤('人'자형 호미), 直口鋤(삽), 鐘(대패), 錘刀(반달칼) 등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해진다. 동화타유적에서도 橫鑿鋤, 多齒鋤, 六角橫鑿鋤, 錘刀 등의 신기종 농공구가 출토되므로 전국 후기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백운상 2012: 71~75, 2013: 30~31) (도면 5-①~⑩).

다만 공반된 명도전이 昭王(기원전 311~279년)의 즉위 이전 형식이므로 보고자는 전국시대 중기 후반으로 판단하였다(河北省文物研究所·唐山市文物管理處 1998: 197~198). 이상의 토기와 철기 등 유물복합체로 볼 때 취락의 존속은 전국시대 중기~후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23호 주거지 온돌 역시 연의 철기문화가 동북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장하는 B.C. 4세기 후엽에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권의 상호관계

하북성 북부지역의 부뚜막은 연하도유적을 거쳐 동환타유적에 이르러 온돌의 배 연구조로 정형화되어 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과정을 거치며 마침내 동환타 유적에서 ‘다원설’의 기원지로 추정되어온 곳의 ‘ㄱ’자형 온돌과 동일한 구조와 형태가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하북성 일대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이미 내몽고지역에서는 흥룽구유적에서 보듯 오래 전부터 온돌이 존재하였기에 두 지역의 상호관계를 배제하기 어려운 점 때문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양자의 상호관계를 분명하게 밝히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흥룽구와 동환타유적 사이의 시공간적 간극을 채워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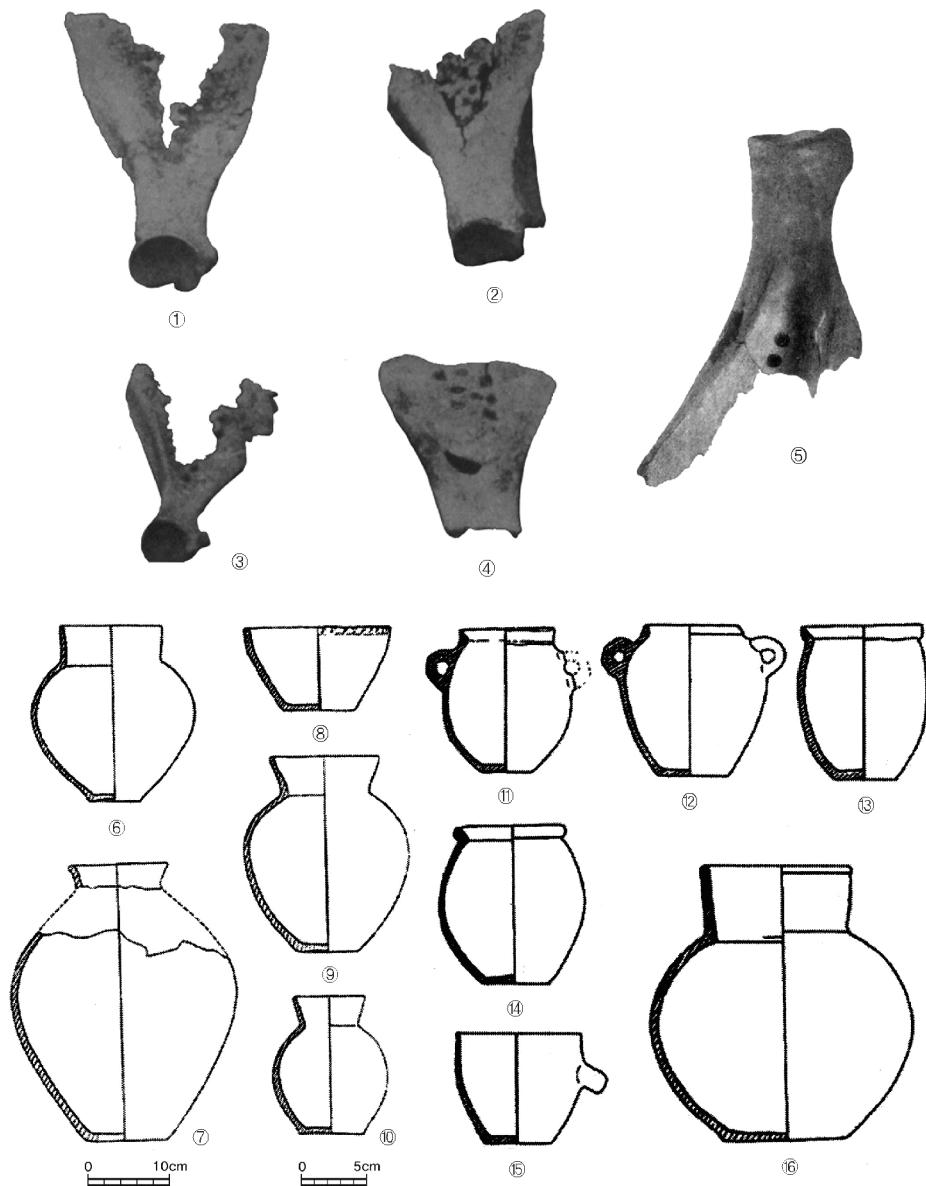
그렇지만 양자를 이어줄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두 지역 모두 하가점 하층문화 단계에는 하나의 문화권이란 점에서 어느 정도 상호 동질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하가점 하층문화의 남쪽 범위는 河北省의 承德-唐山-天津地區이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622). 따라서 적봉의 흥룽구유적 3-1호 주거지에서 등장한 온돌구조는 당시 부뚜막을 사용하던 동일문화권 내에서 어느 정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내몽고 적봉지역과 하북성 북부 및 요서지역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내몽고 동남부지역은 물질문화가 夏家店 下層文化 → 夏家店 上層文化 → 鐵匠溝-水泉 諸類型⁶⁾ → 戰國 燕文化 → 秦·漢文化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상호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오강원 2013: 77)(도면 6-⑥~⑯). 이는 철장구-수천유형을 통해 이 지역의 문화적 공백을 메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적봉 오한기 일대에서도 戰國 燕文化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가점 하층문화 단계에 내몽고 적봉 일대에서 하북성 북부지역을 연결짓는 또 다른 문화적 동질성으로 당시의 占卜文化를 들 수 있다(도면 6-①~⑤). 하가점 하층

6) 철장구 유형은 적봉 오한기의 철장구토광묘군, 수천유형은 오한기의 수천 북묘구고분군을 표지로 한다. 아직 개별유형으로 설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나 하가점 상층문화와 전국 연문화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므로 이 시기의 지역 문질문화에 대한 정황을 이해하고자 오강원(2013: 77~79)에 의해 잠정 제시된 유형이다. 이들 유형 모두 적봉 오한기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이후 전국 연의 동환타유적에서 온돌이 등장하는 계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헌편 전국 연문화부터 전·현문화까지는 고대 중국의 확대와 관련이 있지만, 하가점 하층문화 단계의 내몽고 동남부 서요하유역은 대릉하유역의 요서지역과 동일한 물질문화가 나타난다. 따라서 양 지역 간에는 취락과 주거지, 성의 ㄱ'조 및 토기 등의 유물 등이 모두 동질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화에서는 다수의 복골이 발견되는데 주로 소, 돼지, 양, 사슴의 견갑골이 사용되었다. 이 시기의 점복에 사용된 복골의 주요 출토지로 內蒙古 赤峰 藥王廟 · 夏家店 · 蜘蛛山 · 東山咀 · 大甸子遺址, 寧城 南山根, 敦漢旗 範仗子墓地, 河北의 唐山 大城山遺址 · 北京 昌平 張營遺蹟 등이 있다(朴載福 2014: 9~10, 2016: 76).



[도면 6] 夏家店 下層文化 壺厓卜骨 ①~④赤峰 藥王廟 ⑤唐山 大城山 ⑥~⑩鐵丘溝 古墳群 壺厓유물 ⑪~⑯水泉古墳群 壺厓유물

하가점 하층문화는 燕北地域의 내몽고 적봉 일대와 燕南地域의 하북성, 요서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초기에는 중심지인 내몽고 적봉 일대에 복골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동시기의 다른 지역에 비해 복골의 출토량이 많은 것은 이 지역에서 점복문화가 발달하였음을 의미한다(朴載福 2016: 92~93).⁷⁾

특히 하가점 하층문화에서 발달한 점복문화의 분포 범위를 살펴보면, 내몽고 적봉 일대에서 및 하북성 당산 지역에 이르는 지역이 주요 출토지라는 사실은 매우 주목되는 점이다. 더욱이 적봉 약왕묘를 비롯한 상당수의 복골 출토지들은 하나같이 신석기 시대부터 부뚜막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다(표 1). 이처럼 적봉 오한기와 당산 동환타 일대는 하가점 하층문화 단계부터 이미 복골과 부뚜막이 활발하게 사용되던 동일 문화권이란 점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하북성의 연하도와 동환타 유적에서 부뚜막의 배연 공간을 벽체 외부로 빼는 구조나 전형적인 'ㄱ'자형 온돌의 등장을 일시적이고 돌출적인 양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흥륭구 유적에서 시작된 부뚜막과 온돌 구조가 이어져 오면서 전국 시대 후기에 전형적인 'ㄱ'자형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부뚜막을 사용하던 동환타 유적에서 온돌은 부뚜막의 한 종류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성이 크다. 부뚜막의 측면에 고래만 길게 빼면 바로 온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삼국 시대에 온돌의 고래를 떼어 부뚜막만 쓰거나 부뚜막의 고래를 길게 늘려 구들처럼 사용한 것을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당산 동환타 유적의 'ㄱ'자형 온돌은 '다원설'의 기원지로 추정된 지역의 온돌보다 1~2세기 가량 선행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시차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또한 벽체를 따라 고래를 설치하고 솔걸이를 가진 부뚜막과 직각을 이루는 구조나 형태 역시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동환타 유적 23호 주거지의 온돌은 이후의 'ㄱ'자형 온돌에 영향을 미쳤음을 분명해 보인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원설'의 온돌의 기원지로 추정된 지역으로 전해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자료만으로 이후의 확산과정이나 지역 간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게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향후의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한편 고고학자료를 통한 접근과는 또 다른 관점으로 戰國時代 燕의 동환타 유적이

7) 최근에는 왕법신, 왕총, 서소봉 등 중국 연구자들이 하가점 하층문화의 복골을 분석하여 이 지역에서 중원의 商文化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朴載福 2016: 77~79). 이로 보아 중국 동북 지역의 초기 청동기문화인 하가점 하층문화에서 복골을 이용한 점복문화가 무척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리하는 하북성 당산지역을 온돌의 기원지로 추정한 사료가 있어 주목된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李圭景(1788~1863)의 『五洲衍文長箋散稿』의 「溫燠土炕辨證說」에는 온돌의 기원지로 戰國時代의 燕을 지목하고 있다.

“此中土炕制也 余游朔方 初見沿路人家炕制 適與古幽 燕之俗相符 略取前日所聞者
紀之 以爲辨證焉”

“이것이 중국의 炕('ㄱ'자형 온돌)에 대한 제도이다. 내가朔方(북쪽의 추운 지역)에 가서 처음으로 길가의 민가에서炕에 대한 제도를 보았다. 마침 옛날의 幽州地方 즉 연나라의 풍속과 서로 부합하였다. 전에 들은 것을 대략 취하고 기록하여 변증을 한다”(김남웅 2004: 102).

이규경은 『漢書』, 『水經注』 등을 참조하여 저술하였다고 출처를 밝히고 있어 주요 정보를 중국의 古書에서 얻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온돌에 관한 역사적 배경은 아마 『水經注』를 저본으로 참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北魏(386~534)의 鄖道元(469~527)이 지은 지리서인 『水經注』(500~513)에 鮑丘水란 강물의 수원을 적은 글에 온돌난방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기 때문이다(김남웅 2004: 43). 이를 보면, 관계 사라는 사찰에 1,000여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전각이 있는데 여기에 온돌로 추정되는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下悉結石爲之 上加塗壁 其內疎通技經脈 基測室外 四出熾火 炎熱內流 一堂盡溫”

“방바닥은 모두 돌을 결집해서 괴고 그 위에는 진흙을 빌렀으며, 그 안을 여러 갈래로 소통시키고 줄기가 기초 옆의 방 밖으로 나오게 하여 밤 짓는 불이 사방으로 나오고 뜨거운 열은 안으로 흘러서 건물의 방바닥 전체가 따뜻해진다”

위의 기사로 보아 北魏의 觀雞寺라는 절에 오늘날의 온돌처럼 바닥 난방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시기인데 당시 중원지역에서 온돌건물이 존재하였다는 것이 새삼 주목된다.

북위시기의 ‘觀雞寺’라는 사찰의 위치를 찾아보면 현재의 北京 동남향에 위치하

는 河北省 ‘豐潤’의 동쪽지역이다. ‘豐潤’은 오늘날 행정구역으로 찾아보면 河北省 唐山市의 ‘豐潤區’에 해당하며, 그 동쪽으로 동화타유적이 자리한다. 이곳은 북위 40°에 접하는 초기 온돌의 남방한계선이라 할 수 있는데 이보다 남쪽지역에서는 아직 초기의 온돌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북성 북부의 당산 일대에서는 戰國時代 이래 오랫동안 온돌문화의 전통이 이어졌을 가능성과 이후 北魏時期에는 사찰의 전각에까지 설치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水經注』를 저술한 역도원이 오늘날의 하북성 출신이란 점을 참고한다면 ‘觀灘寺’에 대한 내용은 비교적 소상히 알고 서술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기록의 신빙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하북성 북부지역은 초기의 ‘ㄱ’자형 온돌이 발달한 곳이기에 북위시기에도 온돌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무척 흥미로운 일이다.

IV. 맺음말

그동안 우리나라는 온돌의 종주국으로 자부해왔지만 정작 그 발생 시기나 기원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온돌의 기원지가 고구려(정찬영 1966; 장경호 1985; 주남철 1987), 또는 동아시아 각지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했다는 다원적인 시각(송기호 2006; 유은식 2015)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爐가 온돌로 발전되어가는 과정이나 중간구조는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 지역의 온돌은 철제 농공구류, 새로운 제도기술의 토기와 기종이 공반하며 갑자기 등장한다는 점에서 기원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온돌의 기원지는 기준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곳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온돌의 기원지는 과연 어디일까?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기준의 ‘다원설’에서 기원지로 알려진 지역부터 검토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들 지역은 하나같이 기원전 3~2세기의 동북아시아에 집중되며, 온돌의 구조, 형태, 축조재료, 설치 위치, 공반 유물 등이 거의 동일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정된 시공간과 물질문화의 유사성을 보이는 것은 단일지역에서 발생한 온돌이 ‘다원설’의 기원지로 전해졌음을 의미하는 증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온돌의 실제 기원지는 기준의 ‘다원설’에서 기원지로 추정되었던 지역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는 추론 또한 가능하다.

따라서 온돌의 기원지는 기준에 기원지로 알려진 곳과 인접한 지역이거나, 상호 관계가 형성된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 전 지역과 시기를 대상으로 살펴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찾기 위한 3가지 기준을 정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1. 시기는 기원전 3세기 이전, 2. 지역은 북위 40° 이상 동북아시아, 3. 기술은 아궁이와 배연구조의 존재로 정하였다.

이상의 3가지 기준에서 북위 40° 이상의 고위도 지역은 한반도 북부, 중국 북부(요령성 · 길림성 · 흑룡강성 · 내몽고자치구 · 하북성 북부 · 신강위구르자치구 · 감숙성 북부) 지역, 몽골공화국, 러시아 연해주와 자바이칼 일대가 해당된다. 검토 결과 한반도, 러시아, 몽골공화국에서는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중국에서는 신석기~전국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조와 형태의 시설이 확인되었다. 이중 內蒙古의 赤峰 敖漢旗 興隆溝遺蹟 하가점 하충문화단계 3지점 1호 주거지에서 최초의 ‘ㄱ’자형 온돌구조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 지역을 중심으로 후행하는 사례가 없어 이후의 변화과정이나 초기 온돌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후 전형적인 ‘ㄱ’자형 온돌 구조는 戰國時代 후기의 河北省 唐山 東歡坨 遺蹟 23호 주거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동환타유적 23호 주거지의 온돌은 흥륭구유적 3-1호 주거지 온돌과 조성방식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하다. 그리고 동환타유적의 ‘ㄱ’자형 온돌은 ‘다원설’에서 기원지로 추정된 곳과 구조나 시기적으로 가장 가깝다는 이를 지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흥륭구유적과 동환타유적은 모두 하가점 하충문화 단계의 동일한 지역권에 해당하는 곳이다. 그리고 하가점 하충문화 단계의 양 지역에서 보이는 문화적 동질성은 부뚜막과 占卜文化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온돌의 구조적 이해와 축조기술은 부뚜막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던 동일 문화권 내에서 오랫동안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기술적 이해는 후대의 동환타유적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는 두 지역의 온돌이 축조방식에서 약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구조적 특징이나 형태 등이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온돌의 기원지는 적봉 흥륭구유적 3-1호 주거지이며, 이후의 전형적인 ‘ㄱ’자형 온돌구조는 당산 동화타유적에서 완성되어 외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온돌의 기원지와 ‘ㄱ’자형 온돌의 원형이 밝혀진 만큼 더이상 소모적인 기원지 논쟁은 종식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흥륭구유적과 동환타유적 사이의 공백기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아 시공간적 상호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아가 온돌의 기원지에서 ‘다원설’의 기원지로 알려진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 게재하였음을 밝힌다(오승환, 2018,『온돌의 기원과 한반도 확산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투고일 2020. 12. 31 | 심사완료일 2021. 1. 28 | 게재확정일 2021. 2. 2

참고문헌

-國文-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한국고고학사전』.
- _____. 2012,『한국고고학전문사전－신석기시대편－』.
- 김님웅, 2004,『문현과 유적으로 본 구들이야기 온돌이야기』, 단국대학교출판부.
- 김동훈, 2005,「韓國 烤窯式 爐施設에 관한 試論：鐵器時代와 三國時代를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윤, 2009,「동북한과 중국 연변지구의 초기 철기시대문화」,『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김주호, 2017,「中國東北地域 鐵器의 流入과 發展」,『호남고고학보』57집, 호남고고학회.
- 나선민, 2016,「中西部地域 原三國 漢城期 百濟 시루(甑) 研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朴載福, 2014,「중국 북방지역의 갑골첨복에 관한 고찰 -宋開闢문화와 夏家店 하층문화를 중심으로-」,『중국고중세사연구』제32집.
- _____. 2016,「중국 동북지역의 첨복문화에 관한 고찰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복골을 중심으로-」,『동북아역사논총』54호, 동북아역사재단.
- 백운상, 2012,「전국에서 서한시기까지의 연나라지역 철기문화 및 그 특색」,『2012 동아시아 고대 철기문화연구－연국 철기문화의 형성과 확산』, 국립문화재연구소.
- 송기호, 2006,『한국 고대의 온돌－북옥자, 고구려, 발해－』, 서울대학교출판부.
- 오강원, 2013,「청동기～철기시대 중국 동북지역 물질문화의 전개와 상호작용 및 주속」,『고구려발해연구』제46집, 고구려발해학회.
- _____. 2016a,「기원전 3~1세기 中國東北과 西北韓地域의 物質文化와 燕·秦·漢」,『제44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회－원사시대 사회문화 변동의 본질－』, 한국상고사학회.
- _____. 2016b,「기원전 3~1세기 중국 동북 지역 예맥문화권의 타난문단경호」,『한국문화심층연구 공동연구과제』, 한국학중앙연구원.
- _____. 2017,「초기철기시대 동요하 중상류역～제2송화강 하류역 낚안 장각두형토기 공반 문화의 출현과 배경」,『동북아 철기시대 토기제작의 전통과 변용』,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심층연구 공동연구팀.
- _____. 2020,「중국 동북 지역 첨토대토기의 연대와 선계」,『영남고고학』87.
- 오승환, 2021,「구들의 기원지 재고」,『문화재』제54권 제1호(통권91호), 국립문화재연구소(발간 중).
- 유은식, 2004,「두만강유역 초기철기문화 연구」, 송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5,「동북아시아 초기 쭉구들의 발생과 전개」,『고고학』14-3호, 중부고고학회.
- 임윤미, 1990,「韓國先史時代 爐址 研究」, 송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張慶浩, 1985,「우리나라 煖房施設인 溫突(구들) 形成에 對한 研究」,『고고미술』NO165, 한국고고미술학회.
- _____. 1992,『韓國의 傳統建築』, 문예출판사.
- 정인성, 2012,「燕下都遺蹟 土器와 瓦의 특징」,『동아시아고대철문화연구 국제학술포럼』, 국립문화재연구소.
- _____. 2014,『燕式土器文化의 확산과 後期 山朝鮮의 토기문화』,『백신학보』100호, 백신학회.
- 정찬영, 1966,「우리나라 구들의 유래와 발전」,『고고민속』4호, 사회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 조진선, 2015,「燕下都의 造營과 都城 機能의 變遷」,『한국고고학보』96호, 한국고고학회.
- 朱南哲, 1987,「온돌과 부뚜막의 고찰」,『文化財』12호, 文化財管理局.

-中文-

- 國家文物局 主編, 2003, 「中國重要考古發堿」,「內蒙古敖漢旗興隆溝聚落遺址2003年發掘」,文物出版社。
- 吉日嘎拉, 2012, 「內蒙古赤峰市敖漢旗興隆溝遺址挖掘報告」,『赤峰學院學報(漢文哲學・社會科學版)』, 第33卷 第11期。
- 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 1997,『大汶口續集』,科學出版社。
- 桑端菲, 2013,「東北亞地區火炕源流考」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東北師範大學學位評定委員會。
- 索秀芬·李少兵, 2009,「興隆溝文化聚落形態」,『邊疆考古研究』第8輯,科學出版社。
- 石永士, 1995,「河北考古工作中發現的先秦房屋建築遺存」1995年第4期(總第30期),『文物春秋』。
- 劉國祥 2003,「敖漢旗興隆溝新石器時代遺址」,『中國考古學年鑑 2002』,文物出版社。
- 刘敦桢主编, 1980,『中國古代建築史』,建筑科学研究院建筑史编委会组织 编写,中国建筑工业出版社。
- 周崇云·張彤, 2017,「考古學視角下火炕相關問題研究」,『東北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15卷 第5期。
- 中國考古學會編, 2003,「敖漢旗興隆溝新石器時代遺址」,『中國考古學年鑑2003』,文物出版社。
- _____ , 2004,「興隆溝聚落遺址」,『中國考古學年鑑2004』,文物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內蒙古第一工作隊, 2004,「內蒙古赤峰市興隆溝聚落遺址2002~2003年的發掘」,『考古』7。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敖漢旗博物館, 2000,「內蒙古敖漢旗興隆溝新石器時代遺址調查」,『考古』9。
- 河北省文物研究所, 1996,『燕下都』,文物出版社。
- 河北省文物研究所·唐山市文物管理處, 1998,「唐山東歡坨戰國遺址發掘報告」,『河北省考古文集』,東方出版社。
- 华阳, 2004,「東北地區古代火炕剖釋」,『考古發現與研究』2004年第1期(總第77期)。

-日文-

- 合田幸美, 2000,「壁灶の集成」,『日本中國考古學會會報』第1號, 日本中國考古學會。

A Study on the Origin of Ondol

Oh, Seung-Hwan(President, Guardian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is paper is a study to clarify the actual origin of ondol. There are several areas that have been estimated to be the origins of ondol.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revealed that it is not the origin of ondol. All of the places estimated to be the origins of the ondol correspond to the north latitude of 40° or more in Northeast Asia, and the 3rd~2nd centuries B.C. Therefor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origin of the ondol existed not far from here. And since ondol cannot be invented directly from furnace, it can be possible to narrow it down to the area where the furnace and chimney were used. These include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ern part of China, the Republic of Mongolia, and the Maritime Province of Russia and the Zabaikal region. However, there are no cases of this condition in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Mongolian Republic, and Russia, and many of them are confirmed only in China. In China, ondol appeared in the 15th century B.C. from the Xinglonggou site of Inner Mongolia. In the 4th century B.C., a typical 'ㄱ'-shaped ondol was identified in the Donghuantuo site of Hebei province. Thus, the origin of the ondol is the Heungnyungyu site, and the typical 'ㄱ'-shaped ondol was originated from the Donghuantuo site.

Key words : Ondol, place of Origin, Xinglonggou, Donghuantuo